



어머니를 모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뒤 한 2, 3분이 지났을까?
 큰아이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할머니 방금 오셨지?” 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머니 냄새가 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얼싸 안는다.

할머니 냄새란 사실 썩 좋은 냄새는 아니다. 큰 아이는 그래도 할머니가 좋단다. 조금 있다가 둘째가 학원에서 돌아오더니 역시 얼싸안고 좋아한다.
 난 어머니께 “엄마, 우리 딸 이쁘게 잘 컸지?” 했다. 얼굴이 이쁜단 애기가 아니었다. 할머니 귀한 줄 알고 냄새나는 할머니 좋아하는 아이 같으면 나중이라도 사랑귀하게 알며 사람답게 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일 전주 큰아들 집에 갔다가 모레 서울 정기 검진 받으러 가려 우리집에 잠시 머물러 오셨다.
 남편이 던진 바위, 아들 딸이 던진 바위를 다 삼켜 어머니 위 속에는 바위가 하나 들어앉았나보다.
 지난 여름에 내시경 수술을 받으셨지만 바위를 다 들어내지는 못 했단다. 항암치료를 받으시기엔 너무 연로하셔서 약으로 다스려보겠다고 했다. 멍텅멍텅 머리가 빠진단다. 살이 부쩍 야윈단다. 그러면서 아직도 당신 혼자서 시골집을 지키며 푸성귀 챙겨주는 재미로 사신다.
 아직도 당신은 모르신다. 당신 뱃속에 바위가 들었던 것을...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둘째가 지 언니를 안방으로 몰아내고 할머니와 함께 잔다고 좋아한다. 고맙다.
 소주 한 병이 이렇게 좋다.

(김 목사의 고민: “소주 한 병이 이렇게 좋다”는 부분 때문에 좋은 내용임에도 주보에 실을지 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좀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행복한 표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교우들의 능력을 생각하니 그 고민이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뻘 그랬지▶ 버스 회수권
 회수권, 토권이란 것으로 버스를 이용했던 4050세대의 학창시절. 1매에 10장씩인가 달려있던 회수권은 버스를 탈때마다 한 장씩 내며 탔습니니다. 회수권은 버스를 이용할 때만 아니라 학교앞 튀김집에서도 사용가치가 있었습니니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나니 10장짜리 회수권을 11장으로 잘라내어 사용했던 그때의 친구들이 그리습니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27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7월 4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하나님을 부르지만 한 사람



날마다 한 시간씩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앉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화를 잘 내고 욕심이 많은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늘 화를 내고 어떤 물건에든 욕심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니다. 다음날 노인은 젊은이 집 앞에서 큰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니다. 젊은이는 모른 척 기도에만 열중했습니니다. 그런데 노인이 계속 불러대자 화가 치밀었습니니다. 젊은이는 "참아야해. 노인은 곧 돌아갈 거야" 하며 심호흡을 하고 다시 정신을 집중했습니니다. 그러나 노인이 문 앞에서 계속 시끄럽게 이름을 불러 대자 결국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어 소리쳤습니니다.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제 기도 시간을 방해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웃으며 젊은이를 꾸짖었습니니다.
 "나는 겨우 10분 동안 자네를 불렀을 뿐인데,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군. 그런데 자네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가.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쯤 얼마나 화가 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남편 심계명▶ 배려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하고 키워 주는 것

◀아내 심계명▶ 배려
 남편 홀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주 일 예배

(* 표에 있어서 기이려면 공복은 양으로써 드리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성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회개가 없느니라

성서의 선언
Proclaim

인도자

33장

다 같이

*성서교독
Hymn

52 (요 14장)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앙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찬송
Hymn

510장

다 같이

기도
Prayer

마가복음 11:12-24
(마태 21:18-22)

인도자

성경독회
Scripture Reading

나무심자기성가대

찬송
Choir

산나는 예수님의 기적
"물위안 무화과 나무"

찬송곡 목사

찬송
Hymn

512장

다 같이

찬송
Opening Pray

이 믿음 다투지 마세라

다 같이

찬송
Benediction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를 맞습니다)

◆7월의 예배위원 ◆7월의 교회일 ◆

4	찬송곡 목사	학원부 수련회 (5)	구약예배 (9)	
11	찬송곡 목사	민중의 어머니기도회 (13)	민중의 어머니기도회 (13)	
18	찬송곡 목사	칼빈교회 성령	칼빈교회 성령	
25	찬송곡 목사	이삭씨기주일	이삭씨기주일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 믿음대로 하면 수해복다. 그래도 학아복다
* 누구나 웃음하도. 그래도 아버지를 복인다

*3주간 예배, 전교향회 이후에
을복 자력이 주어집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신후 권원
하셔서 바를 판단이 됩니다

1. 교우소식

*요즘 강기를기 쉬운 바세입니다. 강기를여 물한 단 교우들도 계시구요. 따뜻한가
물을 감싸시면서 강기로 아파하시는 교우들의 패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음복> 권광영, 장태복, 허도(2남, 3남, 3구역) 수전, 수연
3307-1183 ☎ 2-C-2 148 Quay St. City
2. 정기구약예배 <일시> 금요일 저녁7:30
3. 다음주일은?(11월)
*교회향림기쁨을 감사하면서 또 자녀들의 방학을 맞아 권보리교우 모두 Stadium에서
예배와 전교를 나누겠습니다.
<일시> 다음주일(11월) 낮 12시-오후 4시 <장소> Avondale College Stadium
47 Victor St. Avondale

*식사: 구역별로 준비해주세요

4. 교회향림기쁨 "부모님 안에서 감사의 Concert"
<일시> 17일(토) 오후 5:00-10:00 <장소> Pump House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학을 가지도록 뒷바라지 하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자녀를
감사의 축제를 보어드립니다. 따뜻한 부모 마음, 고마운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5. 학생부 겨울 수련회. <일시> 7월5일(월)-7일(수) #15 833 Kingsseat Rd. Karaka
*시간내어 자원봉사하여 주실 교우를 기다립니다. *모양:교회 오전 11시

6. 점심식사 감사봉사 <일시> 10월(토) 오전 10시-오후 1:30 담당: 권석자, 김석봉, 봉사위원,
7.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7:30pm>

*'레위기'를 공부할 기회가 우리 형제에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를 통해 보아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지요! 겨울이어서 강하
후 믿어 나는 따뜻한 복수수 차 한잔이 참 어울려 좋습니다.
8. 정기양회, 6월(화) 저녁 7시 교회

▶작한 시인들▶ 온 내리는 저녁 중에서 권광화

저녁은 설했하게 떠도는 바람
고향마를 찾아오고 싶다

아이를 한바탕 떠들다 돌아가고
시누대별 참새들만 춤다고 조차대면

저녁 어스름,
그런 밤 지나다가

나를대던 단편머리 뜨고 싶다
외양간에 붉은 소

거진 속을 아서던 소리를릴 듯하다

은 겨울바람이 불던 지난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 맞아보면 어떤
카하여 Mt Eden을 올라서니 등
정이를 빠르게 올라오는 바람이
서 있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어
였습니다. 바람이 스쳐만 가지 만
고 생각도 마음도 하나 남김없이
했습니다. 처음의 마음처럼 누워
랜드를 볼 수 있도록...
잠시 후공 겨울입니다. 아프신
피우들이 겨울엔 겨울바람도
지나가고 겨울도 끝났으면 좋겠
습니다